

J.H.R '물처럼 살기'

미래 예측과 공생...상상의 세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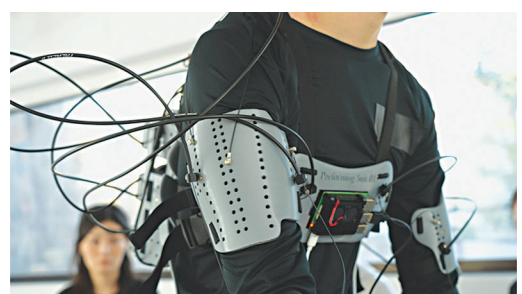
ACC 레지던시 결과전 '지구 생존 가이드:포스트 휴먼 2022'

내달 5일까지 ACC 복합전시 1관
창·제작 실험결과 20여 점 선봬

물의 오염상황이 스크린에서 영상 이미지로 구현되고, 관람객의 뇌파 신호가 퍼포먼스 예술 활동에 참여한다. 전남대병원 중환자실에서 녹음된 현장의 소리는 세계 멸망 이후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상상하게 만든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입주작가 창작지원 프로그램(레지던시)에 참여했던 작가들이 창·제작한 예술 실험 결과 작품들이다.

ACC 레지던시 결과전 '지구 생존 가이드: 포스트 휴먼 2022'가 문화창조원 복합전시 1관에서 열리고 있다. 팬데믹과 인류세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인 '포스트 휴머니즘'을 탐색하는 전시다.

전시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이 아닌 개체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탐색한다. 인간과 기계, 비인간 주체들 간의 공존과 연대를 꿈꾸는 포스트휴먼의 윤리적 성찰과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 작품 2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구멍이 송송 뚫린 비계 발판을 따라가는 동선은 온난화가 계속되면 지구가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경고의 메



이인강 '퍼포밍수트 01'

시지를 전한다. '물처럼 살기'는 설치작가 정혜련과 미디어 작가 강대운으로 이뤄진 듀오 J.H.R.의 작품이다. 물의 오염 상황과 데이터가 전시장 상부의 거대한 원형스크린에 화려한 유기체 영상 이미지로 구현된다. 이 작업은 과학기술과 인간의 이성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인간의 힘과 의지로 자연환경과 모든 비인간 존재들을 인간이 통제하고 변형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운다.

'퍼포밍 수트 01'은 뇌전도 센서와 착용형 외골격 기술을 이용해 안무가의 동작과 움직임을 제어하는 신체의 움직임에 관한 실험이다. 뇌파 신호를 통해 관객이 안무가의 수트를 조정하고 제어하면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동시에 간접적인 퍼포먼스 예술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시간여행'은 미디어아트그룹 슬릿스코프와 카카오브레인 이 공동개발한 인공지능 '시아(SIA)'와 함께 광주시를 무대로 관객들의 위치 정보와 모바일 인터랙션을 통해 생성한 시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프로젝트다. 관객이 시제를 선택해 '시아'와 함께 시를 쓰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조류대발생'은 가까운 미래에 환경 파괴로 멸망한 인류를 대신해 미세조류가 지구의 우세종이 되는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시작됐다. 전남대병원 중환자실에서 녹음된 현장의 소리는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세계 멸망 이후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상상하며 인간이 탐닉했던 인본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고스트 유토피아'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우크라이나 난민, 베트남 참전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전쟁·민주항쟁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의 기억을 기록해 두개의 다른



오넷아 '고스트 유토피아'

세계로 구성된 가상현실(VR)을 보여준다. 실존적 의미의 삶, 죽음에 대한 논의들을 추적해 가는 여정이다.

'ACC 레지던시'는 지난 2015년부터 전 세계 창·제작자를 대상으로 예술의 창의성과 기술을 융합한 미래 지향적이고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작지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도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휴먼'을 주제로 5개 분야(아트&테크, 비주얼아트, 다이얼로그, 디자인, 시어터)를 공모, 9개국 21팀 33명의 참여자를 선발했다.

전시와 공연 관람은 무료이며 2월5일까지 열린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ACC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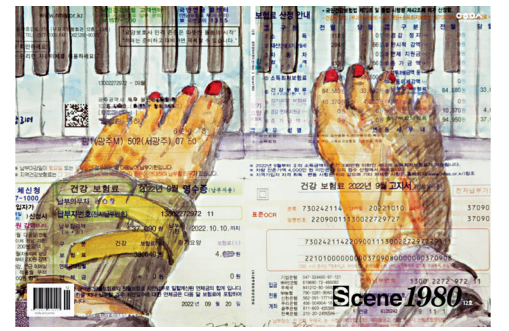
광주 최초 영화비평지 '씬1980' 12호 발행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최근 광주 최초 영화 비평지인 '씬1980' 12호를 발행했다. '씬1980'은 1년에 4회 발행되는 계간지로, 2019년 9월 창간준비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3권의 비평지를 발행했다.

11호에 이어 권승찬 작가가 완성한 작품을 통해 표지를 꾸민 이번 12호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광주시청소년삶디자인센터와 진행했던 '영화비평지 발간 프로젝트'의 청소년 영화 비평이 실렸다.

또한 사회적기업 '잇다'의 대표이자 광주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이순학 대표의 인터뷰와 요즘 전 지역적으로 조명, 확산되고 있는 대안적 영화창·제작 및 상영문화인 '커뮤니티시네마'에 대한 글이 게재됐다.

'픽애크'(Pick and Talk) 코너에서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에 대한 관객 5인의 감상평뿐만 아니라 씬1980 편집위원회가



'씬1980' 12호

직접 뽑은 2022년 올해의 영화 베스트 5가 담겼다.

'씬1980'은 매호 평균 80페이지 분량으로 1,000부를 인쇄해 광주·전남 포함 전국의 영화기관, 영화제, 영화단체, 영화인들과 문화예술인들에게 정기로 우편 발송하며 이외에 광주독립영화관, 광주극장, 독립서점 책과 생활, 소년의 서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최진화 기자

내일 장애인과 비장애인 환상의 하모니

신년음악회, 빛고을시민문화관

지휘 김수연·우리오케스트라 출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는 무대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은 6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2023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신년음악회는 광주형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의 일환이며 광주시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지원을 받아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한다.

이번 신년음악회 공연 주제는 '나의 바람'으로 17명의 교육생들이 2023년을 맞아 바라는 소망을 영상과 음악으로 선보인다. 이번 공연 협연으로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와 스카이브릿지, 라르브르 앙상블이 출연한다.

클래식과 재즈, 팝송과 더불어 장애인예술인의 바이올린, 플루트, 첼로 솔로와 관현악 중주, 관현악 합주도 선보인다.

김수연 음악 감독 겸 지휘자는 "그간 우리오케스트라원들과 함께 연주하면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았고 '우리살아가는 방법이 다를 뿐, 할 수 있는 능력은 같다'라는 모토로 열심히 준비했다. 많은 지역민들이 관람하길 바라며, 응원의 박수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강사로도 활약했던 바이올린 강연, 윤은반, 김지윤, 백혜원, 첼로 김성복, 플루트 조다운이 참여 교육생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했다.

참여하는 장애인예술인은 바이올린에 김소이, 김중서, 김지혜, 김춘자, 문경양, 문현진, 송화수, 오은희, 유광영, 추진실, 한정상, 첼로에 이민우, 이형석, 차진환, 최필립, 플루트에 김민호, 박선영이다. 공연은 전석 무료다.

광주문화재단 황봉년 대표이사는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올 한해도 예술인을 존중하고, 문화로 풍요롭고 예술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 시 광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우리오케스트라 공연모습

문장건설
http://moonjang.kr

세상을 높이는 기업 MUN JANG

2023년 문장건설의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위해 준비 중인 오룡2지구 초고층 주거복합(1,246세대) 건설사업은 매머드급 상업시설을 포함한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지금까지 회사가 쌓아온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노하우"와 시공 기술기술력을 바탕으로 남야신도시 최고(最)의 랜드마크 작품으로 선보이겠습니다!

남야신도시 오룡2지구 프로젝트 | 초고층 주거복합 5개블록 1,246세대 외
주거복합 10BL | 주거복합 11BL | 주거복합 12BL | 주거복합 13BL | 주거복합 14BL

사업영역 |

BUSINESS
건축
사람과 공간을 잇는 기술력

BUSINESS
토목
도로철도항만, 부지조성

BUSINESS
주택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집

BUSINESS
조경&전기
문화 공간, 교육 시설에너지 저장 및 공급, 친환경 발전소